

옛 광주교도소 담장 밖 유해 발굴 기대 높다

제보자 지목 장소와 3공수 지휘관이 그린 암매장 약도 일치 5월단체·전문가 첫 현장답사...빠르면 이달 내 발굴 착수 아스팔트 덮이고 테니스장 조성 등 달라진 지형 최대 변수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 암매장지를 찾는 4번째 발굴조사가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첫발을 땀다. 본격적인 발굴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조사를 주관하는 5·18기념재단 등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한 암매장 추정지 2곳이 교도소 담장 바깥 지점으로 일치함에 따라 유해 발굴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5·18 이후 37년이란 세월 동안 달라진 지형 등은 이번 조사의 변수다.

18일 5·18재단과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법무부 관계자들이 옛 교도소 문을 열어주며 발굴조사를 위한 사전 현장 답사가 시작됐다. 암매장지 발굴은 지난 2009년 4월 3차 조사 이후 8년6개월만이다.

현장 답사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5·18 당시 교도소에 수감됐던 제보자가 동행했다. 이 제보자는 5·18재단에 암매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주둔하던 군인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답사 참여자들은 수감 시설 옥상에 올라가 전체 지형을 살펴본 뒤 교도소 담장 바깥을 도보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첫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재단에서 확인한 결과, 제보자가 암매장지로 지목한 담장 바깥쪽 장소가 5·18 당시 주둔했던 3공수여단 지휘관의 암매장지 약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암매장에 관여한 3공수여단 지휘관이 이 약도를 직접 그린 점을 주목하고 있다.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이 제보자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상당히 정확

하게 장소를 지목함에 따라 발굴 범위를 상당히 좁힐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 교도소 내부보다는 담장 밖에 암매장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상임이사는 이어 "이번에 확인한 장소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5·18 직후 계엄군들이 다시 내려와 시신을 옮기는 등 은폐 작업만 하지 않았다면 유해 발굴 가능성이 큰 곳"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굴조사는 애초 우려대로 지형지물의 변화가 심한 탓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제보자가 기억하는 암매장 추정지 위에 아스팔트가 덮여 있거나 37년 전에는 없던 철제 펜스 등이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과거 농장이 있었던 지역도 현재 테니스장으로 조성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재단은 교도소에 근무했던 교도관을 수소문해 5·18 이후 달라진 지형지물 변동에 대한 설명을 들을 계획이다.

이날 답사에는 엘로드(수맥봉)를 든 2명도 참여했다. 여수에서 온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교도소 내외부를 엘로드로 탐색하며 시신 매장 여부를 확인했다.

5·18재단 관계자는 "본인들이 먼저 도움을 준다고 연락해 와 거절하지 않았다"며 "발굴조사는 증인과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지며 엘로드 탐색 결과는 크게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19일까지 현장 조사를 한 후 발굴 자문을 맡은 조현종(전 국립광주박물관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연구원 구소장과 구체적 발굴 조사 방법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매장된 시신을 확인할 수 있는 지오 레이더 동원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18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에서 진행된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지 현장답사에 수맥봉(엘로드)을 든 사람들이 참여해 5·18기념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교도소 내·외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보성군 경리계장이 관급 계약 알선 브로커로부터 받아 거주지 뒷밭 땅 속 등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7500만원. <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뒷밭에 묻혀있던 수상한 돈다발

보성군 경리계장이 묻어놔 관급 계약금 뇌물설 사실로 보성군수 구속 기소 전·현직 계장 등 불구속 기소

보성군에서 그동안 말로만 떠돌았던 관급 계약금의 '5~10% 뇌물 제공설'이 사실로 밝혀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관급공사를 발주한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이 보성군수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광주·전남·부산 소재 업체들에게 군 발주 공사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군 경리계장을 통해 총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뇌물을 전달한 관급계약 브로커 2명과 뇌물을 이 군수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이 군수 측근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부패범죄 신고자의 책임 감면제도를 적용해 이번 사건의 결정적 물증이 된 5만원짜리 현금다발을 제출한 보성군 전·현직 경리계장에 대해 불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현 경리계장인 A씨가 지

난 8월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7500만원을 검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보성군의 관급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의 자백에 따라 집 마당 뒷밭에 묻혀 있던 현금 6500만원 등 7500만원을 확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관급계약 알선인 등으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2억2500만원을 받아 1억5000만원을 이 군수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7500만원은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집 뒷밭 땅속에 묻어놨다 검찰에 제출했다.

직전 경리계장이었던 B씨도 비닐봉투에 담아 집 책장에 보관해 오던 뇌물 2500만원을 증거물로 내놨다.

B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또 다른 알선인으로부터 22차례에 걸쳐 2억3900만원을 받아 대부분을 이 군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제출한 1억원을 몰수하고, 이용부 보성군수가 받은 뇌물 3억5000만원은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임관형 순천지청 차장검사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유사한 관급계약 관련 비리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자치단체 공무원의 뇌물, 알선수수료,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 범죄 및 지역 토착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옛 광주교도소 현장조사 참여 우원식 민주 원내대표

한국당에 5·18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동참 촉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8일 "잘못된 과거와 단절을 원한다면 함께 못할 이유가 없다"며 자유한국당에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동참을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당시 암매장지로 추정되는 옛 광주교도소를 찾아 "5·18 진상규명은 정파나 이념과 관계없는 일"이라며 "5·18은 우리 역사에서 큰 비극이자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은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 국회 통과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다음 달까지"라고 답변했다.

우 원내대표는 "5·18 특별법은 민주당이 가장 앞에 놓고 있는 법"이라며 "옛 광

주교도소 암매장 추정지 현장조사를 계기로 국회도 힘을 모으고 나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2건이 계류 중이다. 양 정당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행방 불사 소재 확인 등 포괄적인 5·18 진상규명 내용을 담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장조사에 참여한 이유를 "옛 광주교도소를 '그라운드제로'처럼 5·18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암매장 추정지 전수조사 등 진상규명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살인 미수 나주정신병원 탈주범 검거

전자발찌 끊고 도주

인천서 79일만에 붙잡아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유모(48)씨가 79일 만에 검거됐다. 나주경찰은 18일 유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8월1일 오후 3시36분께 나주시 한 정신병원 주변 야산에서 전자발찌를 버리고 벽돌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경기도 수원에서 통장을 개설한 사실을 포착하고 추적, 인천에서

유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유씨를 압송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탈북자인 유씨는 지난 2004년 이북동생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7일 복역을 마치고 감호소를 나온 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10년)을 받고 나주 모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8년 탈북한 유씨는 2001년 '아내를 데려온다'며 재입북했다가 이듬해 남한으로 돌아왔으며, 북한과 관련한 망상장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필로폰 투약 환각상태서 고속도로 운전 40대男 탈미



필로폰 투약 환각상태로 운전한 인근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40대 남성이 경찰에 탈미.

1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48)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순천시 서면 인근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완주 방면 17.2km 지점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갑자기 고속도로 갓길에 급정차하는 모습에 경찰에 목격돼 필로폰 투약 사실이

지탄로났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차에서 내린 운전 자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눈도 풀려있는 등 황실수술해 음주측정을 했으나 반응이 없었다"면서 "순간 마약 투약을 직감하고 순천경찰마약수사팀과 공조해 수사한 결과 공범인 B(61)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과 차량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아티반' 22정도 발견했다"고 설명. /김현영기자 young@

NPL과 특수물건만이 답이다.

**부동산 투자 !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최 선 규 H. 010-3605-5000